



“과태료 사전통지” 정부 사칭 이메일 주의

- 네이버 이용자들 대상 허위 공문 발송해 비밀번호 입력 유도...“유의 당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를 사칭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허위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소장 이훈식)는 최근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네이버 메일이 발송돼 네이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명의도용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2026-51호)’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악성 메일을 열면 본문에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를 누를 경우 네이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 등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지 말고 정보 입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등을 위장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전자메일 등을 열고 그 안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등을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탈취돼 명의도용 및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소는 악성 전자메일을 받고 확인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들에게 사무소가 발송한 메일이 아님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차단 조치했으며, 사무소와 진흥원은 이번 악성 메일에 첨부된 유사 인터넷주소(URL)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붙임. 민원인이 수신한 악성메일(방미통위 공시송달 도용)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책임자	소 장	이훈식	(02-6735-8120)
		담당자	과 장	오형권	(02-6735-81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안녕하십니까, hape****님,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공고번호: 제2026-51호)

공고 일자	2026년 05월 08일
처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됩니다. **첨부된 공고문 및 처분 근거서류**를 확인하시고 소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첨부파일(PDF) 확인

* 보안상 본인 인증 후 상세 처분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02-6735- (작성자: 정)

Copyright ©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버튼 클릭 시

